



참선일기 김홍근 지음 | 교양인 | 1만원

‘일기’는 지극히 내밀한 자기 고백인 동시에 개인의 정신적 성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때문에 다른 이의 일기를 읽는 것은 곧 그 사람의 경험과 정신적 성장 과정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남미 문화 전문가인 김홍근씨가 지난해 가을부터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cafe.buddhapia.com/

“얹이여 안녕! 이제 나와 만나고 싶다”

김홍근 박사의 진솔하고 꾸밈없는 100일 참선 기록

community/khg)에 연재한 <참선일기>는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 떠난 100일간의 참선 체험을 하루하루 일기 형태로 써내려간 글이다.

비록 여러 사람들에게 열린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쓴 글이지만, 그 내용만큼은 지극히 진솔하고 꾸밈이 없다.

스페인 마드리드대학에서 멕시코 시인 옥타비오 파스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지은이는 동양 사상에 심취해 고전 경화를 운영하면서 정신적 갈등을 느꼈다. ‘이성을 통한 공부’의 한계를 느끼고 참선을 체험해보고 싶었지만 고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참선이란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지도해줄 스승을 만나기도 쉽지 않다는 사실에 고뇌하던

그는 20여 년간 유럽에 불교를 전파해 온 현승 스님(육조사 주지)을 만나며 드디어 참선의 세계로 들어서게 된다.

“이제야 스승을 만난 것이라는 확신이 선다. 드디어 제대로 참선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나 자신에게 축하인사를 건넸다.”(1일 ‘열심히 해보시오’) 4월

하지만 참선은 차례차례 배우고 익혀나가는 세속의 공부와는 달랐다. 어느 순간 공부의 진전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일주였다.

“아, 머리 속이 왜 이리 복잡한가? 왜 화두가 딱 잡히질 않는가?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갔다. 믿음을 확인해보고, 화두를 점검해보고, 의식적으로 화두

를 끌어내려 단전에 딱 붙였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3일 ‘앉아서 공을 틀어다’) 4월

공부에 진전이 없는 자신을 책망하며 눈물을 흘리고, 피로가 축적돼 앉을 수 없게 되었다가 현승 스님에게 ‘몸 관리법’을 배우며 초발심(初發心)을 다잡는 과정도 눈에 보이듯 자세히 그려져 있다.

반복되는 시행착오에도 굴하지 않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화두를 참구하고 소참법문을 곱씹던 그는 조금씩 참선에 익숙해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아침에 문득, 참선을 시작한 뒤로 꿈을 거의 꾸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마음이 놓여서 걱정을 하지 않으니 꿈

이 없어진 것이다. 그만큼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말이다. 모두 믿음의 힘이란다.”(29일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 4월

“이제 아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나’를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급선무이고, ‘남’도 제대로 알아 나가야겠다. 이제 진짜 공부를 시작한다.”(56일 ‘잘 가라, 얹이여’)

물론 100일 간의 경험으로 선의 경지를 체험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은이도 알고 있다. “내면의 잡자는 꽃씨에 비를 뿌리는 것이 참선이고, 그 꽃을 피우는 것은 바로 자신”이라는 지은이는 100편의 일기를 통해 독자들에게 절절히 호소한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십시오.”라고.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일본불교사 바로 알기



“흔히 일본불교를 말할 때 스님들이 장례식이나 기제사 같은 장례 행사에 얹매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제를 등한시한다는 뜻으로 ‘장례불교(葬禮佛敎)’라 부릅니다. 하지만 일본 승가(僧家)가 장송(葬送)에 중시하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로, 이는 곧 일본 고대불교를 이끌어 온 관승(官僧)과 가마쿠라 신불교 교단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호엔(法然, 1131~1212) 에이사이(榮西, 1141~1215) 난쇼(南無性, 1217~1302) 스님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일본 불교사의 흐름을 살펴보는 <인물로 보는 일본 불교사(원제: 스님들의 일본사)>의 저자 야마가타(山形) 대학 마츠오 겐지 교수(사진)가 책의 한국 출간을 계기로 5월 12일과 13일 독자들을 만났다.

겐지 교수는 12일 서울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열린 출판 기념 강연회에서 한센병 환자 치료와 항만 정비, 도로 정비 등 사회구제사업에 앞장섰던 에이존 스님과 난쇼 스님의 예를 들며 “사체(死體)에 손이 닿거나 장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사예(死禮)라 하여 꺼리던 당시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자비심에서 일어난 스님들의 현신적인 활동은 매우 혁신적이었었다”며 “이 같은 종교인들의 사회 구제활동은 오늘날에도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겐지 교수는 <인물로 보는 일본 불교사>에서 일본 불교의 특징과 고대불교를 이끌어 온 관승, 신불교를 이끈 가마쿠라 신불교, 무로마치 시대의 불교의 흐름을 짚어보고 있다. 이를 통해 겐지 교수는 “일본 불교의 타락상을 지적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장례불교’의 뜻과 의미를 정확히 알고, 불교계가 그 정신을 계승하는 봉사활동과 사회 구제활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한다.

책을 옮긴 김호성 교수는 “흔히 우리 불교계에서는 일본 불교라고 하면 무사나 무관심으로 일관하기 쉽지만, 서로를 좀 더 알아가려 노력한다면 상호소외에서 벗어나 더 넓은 인목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번역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인물로 보는 일본 불교사 마츠오 겐지 지음 | 김호성 옮김 | 동국대학교출판부 | 1만2천원

설화·유회·열두 동물 소재로

5월에 선보인 어린이 불서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함께 있는 5월은 ‘출판 불모지’라 불리는 어린이 불서 시장이 그나마 활기를 찾은 시점이다. 올해도 아이들을 위한 불서 3권이 잇달아 선보였다.

<팔만대장경 속 열두 동물 이야기>는 소설가 이금이씨가 <본생경>에 나오는 동물 이야기를 새롭게 창작한 것이다. 누가 더 어린인지를 두고 내기를 벌이는 코끼리와 원숭이, 참새를 비롯해 지나친 간섭으로 결국 자신이 곤욕을 당하는 자라 등 열두 가지 동물들의 다양한 우화들이 펼쳐진다.

<우리나라 옛이야기>는 김중희 교수(경희대 국문과)와 사진작가 안정호

팔만대장경 속 열두 동물 이야기

이금이 글 | 한수진 그림 보물창고 | 7천8백원

우리나라 옛이야기 ①

김중희 글 | 최유진 그림 안정호 사진 | 두부공장 | 8천5백원

지구별에 온 손님

모디케이 저스틴 글/그림 신형건 옮김 | 보물창고 | 8천5백원



미취학 아동에게는 ‘유회(輪廻)’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꾸며진 <지구별에 온 손님>을 권한다. 언뜻리기를 좋아하던 티베트 소년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는 꿈을 간직한 채 생을 마감한 후, 다시 연날리기를 좋아하는 소녀로 환생하는 이야기를 통해 ‘살과 죽음’ ‘환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다.

템플스테이 준비하고 떠나라

마음으로 떠나는 산사체험

유철상 지음 | 랜덤하우스중앙 | 1만2천원보물창고 | 7천8백원

절에 머물며 사람의 문화를 체험해 보는 템플스테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2002년, 참가자들의 배낭에는 잡옷과 책, 핸드폰, 간식 등의 ‘여행용품’이 가득했다. 이 모든 물건들이 산문(山門)에 들어서자마자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할 만큼 템플스테이에 대한 인식 또한 낮았던 때다.

지금은 달라졌다. 지난 한해만도 4만여 명이 참가했고 이중 외국인도 3천여 명에 이를 만큼 템플스테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하지만 템플스테이가 ‘이색 체험’으



국내 첫 가요체 염불곡 ‘염불환향곡’ 번역됐다

독송집 따로 묶어 범보시용으로 제격

18세기의 기성패선(箕城快善·1693~1764) 선사 가지는 국내 최초의 가요체 염불곡인 <염불환향곡>이 처음으로 번역됐다. 1975년 그 존재가 다시 세상에 알려지진 30년 만의 일이다.

1767년 경남 밀양군 회악산 운주암에서 처음 간행된 <염불환향곡>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사언구(四言句)와 아미타불 사언구 후렴으로 이루어진 팔언구(八言句)의 부드러운 가요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내용은 중생들이 염불을 통해 마음의 본원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자(還鄉)는 것으로, 기성 스님은 이 교정을 가향(家鄉), 실향(失鄉), 실로(失路), 문향(問鄉), 환향(還鄉)의 여섯 장을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쉽게 따라 읊을 수 있는 부드러운 운율에 그 내용 또한 쉬워 조석 예불 후 부처님을 찬양하는 염불로 널리 사용됐다.

하지만 종교적 학술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염불환향곡>과 기성패선 스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에 발간된 <염불환향곡>은 우리나라 번역은 물론 주(註)를 통한 심도 깊은 해석을 곁들인 해설집과 언제나 수지 독송할 수 있는 독송집으로 구성돼 있다. 조운수 교수(서울대 철학과)의 ‘<염불환향곡> 해제’와 앞서 열거한 연구 논문 등도 함께 실려 <염불환향곡>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게 했다.

조운수 교수는 해제를 통해 “<염불환향곡>은 선과 회연, 정토를 불교의 세 가지 축으로 하고, 그것을 통합해 하나의 통일적인 불교 교학과 수행 체계를 정립하려는 시도”라며 “불교 입문서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당시 불교학의 이해와 수준을 보여주는 불교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책을 엮고 펴낸 현대불교신문사는 <염불환향곡>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의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범보시용 보급을 하고 있다. (02)737-0695



염불환향곡 기성패선 선사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현대불교신문사 7천원·독송집 5천원

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억겁의 계승을 통해 전해져 오던 이 시대의 아부 선사! 대원 문계현 선사(전강 선사님 인가제자)의 감로법문 바로보인 반야심경으로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일시: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12시

www.zenparadise.com
☎ 02-522-0122, 011-785-0122

미륵

일곱 번째 완성자

우리 곁에 오신 미륵

이 책이 던지는 여덟 가지 질문

- 1 아함경에서 말하는 인수 팔만 사천 세의 의미는 무엇인가?
- 2 소승경전의 무상성과 대승경전의 항상성은 어떠한 관계인가?
- 3 12연기법의 무명과 대승불교의 광명사상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4 법화경의 일불승 사상은 중생이 부처되는 교설인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가?
- 5 화엄경의 세계는 실세계인가? 아니면 상상의 세계인가?
- 6 주역에서 말하는 선천·후천의 개혁사상에 대한 불교적 해석은 무엇인가?
- 7 극락세계는 진정코 서방세계에 있는가?
- 8 최근에 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책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여덟 가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립니다.

미륵불은 한 사람이 성도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6불과 당시 스스로를 포함하여 현재 7불의 본말을 밝혔듯이, 미륵이 오실 때도 7불의 처음과 끝을 밝힌다고 하시는 까닭에 미륵불은 6명의 도통을 이어서 7번째로 완성하심을 스스로 밝혀져 있다. 이제 일곱 분의 도통 연원과 의의를 밝히며 비로소 드러나는 진법 대승불교의 일불승 사상을 드러내고자 한다.

※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구입문의: 해조음 053) 624-5586 / 정토사 053) 622-0333

부처님의 팔만 사천 법문 일체가 종교 이상의 진리요, 과학이요, 의학이고, 의술이다

불법 佛法은 의학이다

송담 淞潭 지음

구구절절 약이 되는 감로수라도 - 남양주 봉선사 월운 조실 스님

송담 스님이 온갖 질병과 괴질로 고통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사업이 부도가 나 폐가망신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면서 부처님의 법문으로 환자와 가정과 사업을 일으켜 주었다. 우리 인간들에게 지수화풍水土火風의 4대에서 각각 101가지씩 404가지의 병이 발병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였던 경험담이다.

※문의 - 법화사(02) 2612-3358
전화: 02)335-7883 팩스: 02)335-7858 전자우편: babosae@kornet.net